

『밤티 마을 봄이네 집』 독후 활동지



이금이 글 | 한지선 그림
밤티 | 144쪽 | 초등 3-4학년 | 밤티 마을 3

“

큰돌이와 영미에게 동생 봄이가 생겼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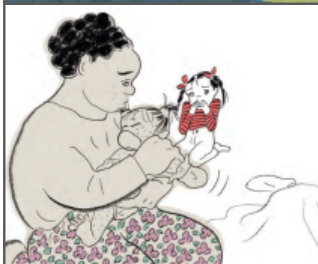
활동 **즐거이 써보기**

사건의 순서에 따라 『밤티 마을 봄이네 집』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장면을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활동2 내 감정 표현하기

아래는 『밤티 마을 봄이네 집』 속에서 인물들의 감정을 비유를 통해 표현한 문장들입니다.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면 내 감정을 한 층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을 참고하여 나의 상황에 따른 감정을 비유를 통해 표현해 보세요.

(tip: 내 마음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 영미의 마음속만 컴컴하고 축축한 동굴 같았습니다. (45쪽)
- 세상을 덮은 어둠처럼 온갖 서러운 기억들이 영미 마음을 덮었습니다. (53쪽)
- 세상을 덮은 어둠처럼 온갖 서러운 기억들이 영미 마음을 덮었습니다. (53쪽)

| 상황 | 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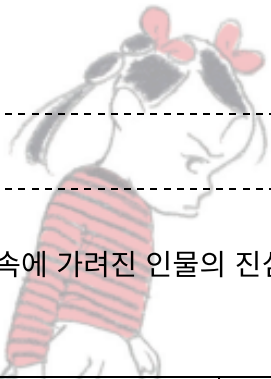
활동3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봄이네 집 가족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말을 내뱉고 나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내가 하는 말은 가끔은 청개구리처럼 굴어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지요.
 아래는 봄이네 식구들이 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질문에 답하며 진심을 찾아가 봅시다.

| 큰돌이가 영미에게 | 영미가 큰돌이에게 |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
|---|--|---|
| "어휴, 넌 언니가 돼선 동생한테 샘을 내고 그러냐?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 "누가 오빠더러 따라오랬어?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오빠는 나보다 봄이가 좋지?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지?" | "아버지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하셨대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

1. 위의 말을 했을 때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상황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1)과 같은 상황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일으키나요?



3. (1)과 같은 상황 속에 가려진 인물의 진심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고, 그 진심을 담아 인물의 말을 다시 써 봅시다.

| 큰돌이가 영미에게 | 영미가 큰돌이에게 |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
|-----------|-----------|------------|
| | | |

활동4

어른도 자라나요

쑥골 할머니는 아기들은 아프고 나면 꼭 한 가지씩 배운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봄이는 아프고 나서 말문이 트였지요.

『밤티마을 봄이네 집』의 인물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고 성장합니다.
아픔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봄이처럼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찾아와
나를 휘청거리게 하기도 하지요. 또는 소중한 사람과의 다툼으로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배운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 인물 | 겪은 아픔 | 아픔을 통해 배운 것 |
|--|----------------------------------|----------------------------------|
|  영미 | ----- ----- ----- ----- | ----- ----- ----- ----- |
|  큰돌이 | ----- ----- ----- ----- | ----- ----- ----- ----- |
|  팔쥐 엄마 | ----- ----- ----- ----- | ----- ----- ----- ----- |

활동5 아픔의 연대기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책 속 인물처럼, 사람들은 아픔을 통해 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성장시킨 아픔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아픔'들에 대해 떠올려보고, 아픔을 겪으면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 이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는 '아픔의 연대기'를 써 봅시다.

()년도

()년도

()년도



작가님께 보내는 편지

'밤티 마을' 시리즈를 쓴 이금이 작가는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을 쓰고 나서 첫 팬 레터를 받았대요.

그 뒤로 밤티 마을 시리즈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 안에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독촉,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곤 했어요.

여러분도 밤티 마을 시리즈를 읽으며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 작가님께 보내는 편지를 써 봅시다.

이금이 작가님께

A large, decorative writing area with a pink border and rounded corners. The area contains ten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stylized pink envelope flap graphic.